2018年アジア神学セミナー秋学期10回レジメ

アジアとキリスト教の未来ー宣教論の再考

徐正敏

（明治学院大学教授、キリスト教研究所長）

ケースを考える

李泰錫神父

「アフリカ南スーダンでの医療奉仕活動に生涯を捧げた故李泰錫（イ・テソク）神父が、南スーダンの教科書に取り上げられる見通しです。
南スーダン政府が現地時間の23日に発表したところによりますと、故李泰錫（イ・テソク）神父の生涯と業績について記述した教科書を現在執筆中で、来年2月の新学期にあわせて出版するということです。
南スーダンの教科書に、社会貢献や奉仕活動をしたことが評価されて外国人が登場するのは初めてだということです。
故李泰錫神父は、医科大学を卒業したあとアフリカ地域での宣教活動を始め、2001年から南スーダンで最も恵まれない地域とされるワラブ州トンジで医療奉仕に尽力し、2010年に48歳で亡くなりました。」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j&Seq_Code=62284

학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생애	1962 년 10 월 17 일 ～ 2010 년 1 월 14 일 (47 세)

출생지	부산시 남부민동
사망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교	천주교(세례명: **세례자 요한**)
부모	신명남(모)
배우자	無(미혼)
복무	대한민국 육군
복무 기간	1987 년 ~ 1990 년
최종 계급	대한민국 육군 대위
근무	군의관
지휘	군의무장교
기타 이력	천주교 사제 수단 톤즈 선교병원 원장

이태석(李泰錫, 1962 년 10 월 17 일(음력 9 월 19 일) ~ 2010 년 1 월 14 일)은 대한민국의 로마 가톨릭교회 살레시오회 소속 사제 겸 의사로 아프리카 수단 남부(현재는 남수단)의 와랍 주에 있는 마을인 톤즈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쳤다.

☑
세례명은 *세례자 요한*이다. 톤즈의 돈 보스코로 칭송되었고, 톤즈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세례명에 성을 더해 발음하기 쉬운 쫀리(John Lee)로 불리었다.

출생과 성장

부산시의 남부민동에서 10 남매 중 9 번째로 태어나 송도성당에서 알로이시오 슈왈츠 신부로부터 유아세례를 받았다. 9 살 되던 해(1970 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며, 어머니가 자갈치시장에서 삯바느질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 성당에서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서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과 산 벨기에 선교사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모로카이(MOLOKAI)를 보고 다미앵 신부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1] 학창시절에는 송도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 청년회, 학생회, 성가대, 보좌복사 등 종교 활동을 계속 하였다.

청년기

1981 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7 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가톨릭 신부가 되는 뜻을 품었다. 복무를 마치고 특히 청소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에 따라 1991 년 8 월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한다. 그리고 1992 년 광주가톨릭대학교에 수도회 소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1993 년 1 월 24 일 수련을 시작해서 1994 년 1 월 30 일 첫 서원을 하고, 광주 가톨릭 대학교에서 2 년 철학과정을 마친 후 서울 대림동 살레시오 수도원에서 역시 2 년 과정의 사목실습을 하였으며, 1997 년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 대학교로 유학한다. 그곳에서 재학 중, 한국에서 이미 20 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다 1991 년 아프리카 수단으로 다시 파견된 공고미노 수사가 로마에 휴가차 들렀을 때 그를 만났는데 그로부터 수단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될 것을 권유받는다. 1999 년 방학 때 선교체험을 하려 아프리카 케냐에 들렀을 당시 남수단 톤즈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제임스라는 인도 출신 살레시오 수도회 신부를 만나 톤즈로 가게 되고, 이때 강렬한 인상을 받아 톤즈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칠 것을 결심한다.

사제 생애

2000 년 4 월 27 일 종신서원을 하고, 2000 년 6 월 28 일 로마에서 부제서품을 받았다. 2001 년 6 월 24 일 서울 구로 3 동 천주교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 월 아프리카를 향해 선교사로 출발하여 12 월 7 일 아프리카 남부 수단 와랍 주 톤즈에 부임한다. 그곳에서 가난과 기아,질병 등으로 도탄에 빠진 마을의 참상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겸한 의료봉사활동과 구호운동에 헌신한다. 병실 12 개짜리 병원을 짓고 진료소를 만들어, 하루 200~300 명의 환자를 돌보며 인근 80 여개 마을의 순회진료와 예방접종도 했다. 학교를 만들고, 초·중·고교 12 년 과정을 꾸려 수학과 음악도 가르쳤다. 기숙사도 짓고 톤즈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악기도 가르쳤다.

나로 하여금 소중한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이곳까지 오게 한 것도 후회 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만드는 나환자(한센인)들의 신비스러운 힘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게 된다.

— 이태석,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중

그러나 2008 년 11 월 한국에 휴가차 잠시 입국하였을 때, 대장암 4 기를 진단받아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암투병 끝에 2010 년 1 월 14 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새벽 5 시 35 분에 살레시오회 형제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종하였다(향년 47 세). 유해는 전라남도 담양군 천주교 공동묘역 살레시오 성직자 묘역에 안장됐다. 그의 이야기는 가톨릭 잡지 《생활성서》에 연재되었고, 《친구가 되어주실래요》라는 단행본으로도 소개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D%83%9C%EC%84%9D

南スーダン共和国（みなみスーダンきょうわこく、英語: Republic of South Sudan）、通称**南スーダン**は、東アフリカに位置する国家。北にスーダン、東にエチオピア、南東にケニア、ウガンダ、南西にコンゴ民主共和国、西に中央アフリカと国境を接する内陸国である。 2011 年 7 月 9 日に、スーダン共和国の南部 10 州が、アフリカ大陸 54 番目の国家として分離独立した。

1，2 次内戦

2 次内戦だけで 250 万人の南部の人々虐殺。

＝＝＝＝＝＝＝＝＝＝＝＝

アジア、アフリカ宣教の歴史

宣教論の再考

「何をどのようにつたえるか。」

「その目的は？」

「信仰共同体は生活共同体」

「広い意味でのエキュメニズム（ecumenism)」

「土着宣教論」